

### 25센트 주화에 아시아계 얼굴 첫 등장



▲ 안나 메이 왕의 얼굴이 각인된 25센트 주화(왼쪽). 안나 메이 왕의 생전 모습. 사진=usmint.gov

아시아계 미국인의 얼굴을 새긴 25센트 주화가 미국 최초로 유통된다.

18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조폐국이 중국계 여배우 안나 메이 왕의 얼굴이 각인된 25센트 주화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25센트 주화에 메이 왕의 얼굴이 각인된 것은 2020년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19조 발효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됐고, 미국 역사상 중요한 여성이 등장하는 특별 주화를 제작해 유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905년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가정에서 태어난 메이 왕은 17세 때인 1922년 첫 주연을 맡았다. 당시 영화에서 인종이 다른 배우들의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금지하는 미국의 법 때문에 주연으로서 출연할 수 있는 영화가 제한돼 유럽으로 건너가 활동하기도 했다.

조폐국은 메이 왕 이외에도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와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샬리 라이드 등의 얼굴이 담긴 25센트 주화도 생산한다.

안젤루는 사상 최초로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흑인 여성. 라이드는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 소수자로 기록될 예정이다.

조폐국은 2025년까지 모두 20명의 여성을 25센트 주화에 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권자 절반 “공화당 찍을 것”

미국 유권자의 60% 이상이 현재 자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공화당을 찍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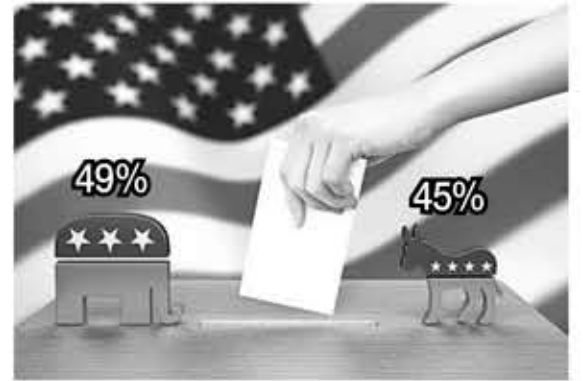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에나대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2일 등록 유권자 792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0%p 수준이다.

조사 결과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4%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으며, 무응답이 11%였다.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면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응답자 49%가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5%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9% 수준이었다. '강력 지지'가 18%, '어느 정도 지지'가 21%였



▲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화당을 찍겠다고 답했다. 사진=shutterstock

다. 반면 부정 평가는 58%에 달했는데, '강력 부정'이 45%에 '어느 정도 부정'이 13%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응답자 26%가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생활비 인플레이션이 18%로 두 번째로 응답 비중이 높았고, 임신중절(낙태)과 이민 문제가 각각 5%씩의 응답을 받았다.

### 재택근무 확산에 7년 만 출산율 반등

미국에서 지난해 출산율이 7년 만에 반등하며 '미니 베이비붐'이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재택근무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에서 지난해 출산율이 7년 만에 반등하며 '미니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자료사진. 사진=shutterstock

20일 '뉴시스'가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한네스 슈반트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UCLA의 마사 베일리·프린스턴대의 재닛 커리와 함께 공동 저술한 논문에서 지난해 미국 출산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것이다.

논문은 미국의 코로나19 부양책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 근무가 급증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출산율은 25세 미만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반등했으며, 한편 재택근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30-34세 여성들 사이에서도 반등했다.

한네스 슈반트 교수는 "경기 침체에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며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녀를 갖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가임기의 짧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여성에게 시간은 아마도 그들이 가진 가장 희소한 자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CNN도 "부모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많은 시간 비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출산율 증가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날말퍼즐 정답									
1	하	지		2	비	3	탈	길	
	여					지		4	흥
5	가	6	수		7	사	면	8	초
		9	위	10	자	료			창
			투		11	차	기	12	장
		13	내	리	14	사	랑		15
17	중	년			하				16
			18	싸	라	기		19	채
									식

